

미제가 또 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준엄한 시기일 때 백사과 보다 귀중한 진리를 새겨지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의 명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성복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의 건결한 조국수호정신과 혁명의 기상이 조국의 산과 물에 차넘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남긴 이 고귀한 진리는 오늘도 충진군데에 오늘에 승리의 향성마냥 세차게 울려져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최고령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는 한민족인 존엄을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사였다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민족은 해치거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견드리는 놈들을 나는 한번도 용서하지 않았다.»

명령의 담력과 배짱은 전쟁승리의 결정적암보이다. 지략과 함께 장군들의 담력과 배짱으로 마련되는것이 바로 전쟁승리라고 말할수 있다. 동시에 고급에 저들의 강대한 무력에 절을 먹는 장군들의 악성과 우유부단성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풍랑하고 강탈의 수치를 당한 실례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있는가.

1950년 여름의 준엄한 나날들을 을 세우면서 우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수호전에 푸러입으시키며 우리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침략자를 물리치고 경멸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보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6월 25일, 미제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시었다. 회의실쪽으로 나오시면서 교시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우렁운 운성이 풀려왔다.

놈들이 어리석기 짜이 없소.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회의실주석단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장내를 둘러보면서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두렵지 않아, 송당이네는 뭉뚱이 더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불리고 멤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불의에 밀려드는 대적앞에서 너무

도태에 자자하신 그이를 우리로마 회의 참가자들은 이 전쟁은 벌써 승리한 전쟁이라는 확신으로 가슴들 박이었다.

그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방송연설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는 그 얼마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억세게 들어잡았던가.

인류역사는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두쟁에 결사적으로 힘을 모은 한민들은 언제든지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정은 정의의 투쟁입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 인민의 편에 있을것입니다.»

우리 수령님의 방송연설은 말그대로 전쟁의 우뢰소리가 되어 세계를 친감시켰다.

적들의 침공을 제칠시기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 전을 개시할때 대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고 있는 조선혁명박물관 관광자들

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달고 적들의 무력침용을 격퇴하며 남으로 노도와 같이 진격한 한민군대들은 적의 희력밀도가 제일 조밀한 3·8° 선지역의 기본전선을 단숨에 소집하고 전쟁이 일어난지 단 3일만에 적의 이성진 서울상당에 공격국기를 휘둘렀다.

적을 푸사하게 주격할것이며 어떻게 어우러지기 짜이 없소.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회의실주석단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장내를 둘러보면서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두렵지 않아, 송당이네는 뭉뚱이 더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불리고 멤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불의에 밀려드는 대적앞에서 너무

참으로 통쾌한 전투들이 미제를 경악하고 손에 맨을 쥐어 지켜보던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우리의 영웅한 혼병들은 단 4척의 어찌정으로 *《바다의 용이》*는 설}이하고 치적하면 미해군의 중순 양함을 적설시켜 세계해양전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설문이 *《미군의 미국적인 폐주의 첫막》*이 열렸다고 혼령 우상전투, 단 100명이 풀려온 탈벽처럼 무너진 금강방어선, 일의 비운으로 기울어진 천관절으로 되게 할것이라고 험주어 교시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교시는 지휘성원들

만이 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적극적인 힘을 북돋아주었다.

적극적인 전지방어전, 그것은 미제의 승리를 암울로 이끌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그 얼마나 비범한것인가.

역사의 그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당시 옳은 방침이 있고 현명한 명도가 있으며 조야군대의 장성들이 이마를 맞대고 고인해낸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

가 있는 한 우리는 능히 적들을 격파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새로

데려온 치적에 들어 많은 아이제하워

의 귀환을 끼어 후배같기는 것으로 되

어 조선에서 미국의 운명이 서산락

의 비운으로 기울어진 천관절으

로 되게 할것이라고 험주어 교시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교시는 지휘성원들

만이 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적극적인 힘을 북돋아주었다.

적극적인 전지방어전, 그것은 미제의 승리를 암울로 이끌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사실 그때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미국전에 선 서방나라들의 한다하는 군참모장들과 수십명의 무르트리에게 전통을 풀기자에게 이어온 공지높은 나날이었다.

언제가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들을 위락파악

하시는것을 보시고 김정일최고사령관

의 담력과 배짱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 장군이 있기 때문에

자신께서는 미움을 놓고있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헌신하였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루에블로》*호사건, *《EC-1 21》* 대형간첩이행기사건, 판문점사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조미핵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

서 편전매충을 암아오시고 우리 조국

미제가 일요일을 전쟁개시날로

정체를 전쟁방화구로서의 흥악한

정체를 가리워보려는것도 있었다.

당시 미군사고문단장이었던 모더그가 리승만역도에게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악식일로 정하고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것을 믿을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멀지 않으키지 않았다는 것*

것을 사람들에게 믿기 위해서이다.

라고 거리낌없이 뇌까린것만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역사의 전실은 가려울수도 감출수

도 없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전쟁

전쟁 6월 25일, 그 일요일 새벽에 불의에

제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도망

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계획하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역사의

계획을 끝내지 못할수 없다고

하나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우

리가 전쟁을 멀지 않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민족을 불리울으키시며 침략자

미제에게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시었다. 빠른 한사람과

주제전선법, 영활한 전략전술이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이기지 못해버렸다.

오늘 우리는 67년전 그날처럼

일요일에 6. 25를 맞는다.

하나 이 땅에서 전쟁의 불길들이

영원히 사라졌겠지!

아니다. 오늘도 미국과

그 우종세력들은 1950년

년대 폐경의 수치와 수십년

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

수표를 막고 예상한

전쟁을 멀지 않으키고 미군개마

방으로 전쟁을 멀지 않으키고 미군개마

포화 속에 울려 퍼진 배움의 종소리

가을이 칠했던 지난 조국해방 전쟁은 새 사회건설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저항과 함께 이 땅의 미래도 모두 맡길 하려고 풀고 배운 미래 아수를 파지한 대결전이었다.

침략자들은 공장과 농촌, 어촌은 물론 병원과 학교들도 무차별적으로 어지럽히고 파괴해버리며 미쳐 달려왔다.

그러나 영웅선조의 승리가 포

최후에서 이미 미련이 없었던 조

국의 미래도 전화 그 나날에

향한 히울리면 배움의 종소리와

함께 역사 나래를 죄고 있었다.

원주민들의 목을 짓누르며 학생들을 배운 후 부르는 종소리, 그것은 항일의 나날에도, 가

한한 전화의 나날에도, 언제나 조국의 미래를 끌어안고 지켜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손길 아래

울려 퍼진 사랑의 종소리, 승리

의 종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쟁이 일어나자 교육사업을 전시환경에 맞게 진행할 때 대한 방침을 세워있으며 교육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내고 계획으로

되어버린 순연한 전쟁이었다.

교육시설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양시에서만 하여도 전쟁전

에 있었던 대학과 전문학교들,

종학교, 소학교건물들이 모두 미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렬정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뛰어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책임입니다.』

미친질 끼운길에 나는 북도에

쌓여있는 이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열길에 새 사람들을 이사오

는 것이었다.

내가 절주인과 만나기 인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환나에게

소년이 달을 밟았을 때에서나

모여 말했다.

『엄마, 지구

의 내가 들어

갈까요.』

지구의 를 보며

그 말에 들어

보니 지구의 눈에 띠었다.

『지구의가 새것이 구만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애를

위해 구한거란다.』

자식에게 주진하는 생각을

하며 옆에 놓여있는 지구의를

들어주면 나의 눈길은 어느 한

곳에 놓쳤다. 새것이나 다른

것이 있다.

나의 눈길은 감속한듯 열집나

인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글쎄 우리 애가 말하기를 주제들이 날아가 물을 없애 버렸다니요. 그러면서 자기는

커서 더 위험한 주제들을 만들 어내겠네요.』

자세히 보니 찢겨진 부분은

미국땅에 떠 있다.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마음도 우리의 주제판에

에 대한 적개심이 활활 끊어버

지고 있는가.

동방의 한강국, 아시아의 로

제야수들에게 의해 불려버렸다. 전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1951년 5월까지의 기간에만도 공화국 북부민부의 전제 학교의 약 40%와 전체 교실수의 거의 절반에 펴펴되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 왔던 국제 민주성명조사단의 한 성원은 『파업과 공업대 학당』을 놓고 이렇게 묘사하였다.

『몇몇 남자는 벽을 끌고 놓은 바위를 끌어내려고 미쳐 달려왔다.

그러나 영웅선조의 승리가 포

최후에서 이미 미련이 없었던 조

국의 미래도 전화 그 나날에

향한 히울리면 배움의 종소리와

함께 역사 나래를 죄고 있었다.

원주민들의 목을 짓누르며 학생들을 배운 후 부르는 종소리, 그것은 항일의 나날에도, 가

한한 전화의 나날에도, 언제나

조국의 미래를 끌어안고 지켜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이 뜨겁게 머금어졌다.

전선으로 나간 학자들과 대학 교수들을 품고서 교과서와 출판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고 전시교과서 출판과 학생들의 학습용으로 많은 양의 종소리를 보내신 어버이 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이 뜨겁게 머금어졌다.

그렇게 남자는 벽을 끌고 놓은 바위를 끌어내려고 미쳐 달려왔다.

그리하여 1951년 8월 1일에 전제학교들의 개교식과

이 성적으로 전쟁에 헌신한

1952년에는 학생과 학생들의 위

학률이 전전에 비하여 114%

증가되었고 각각 학교의

신입생수도 그 전쟁에 비하여

고급중학교는 4.6배, 고급중학교

는 8.2배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1951년과 1952년 두 해사이에 지상교설물을 비롯하여 2만 6천여개의 교실들이 전설을 이루었고 그 그날에 향한 오늘의 두정은 적들의 비

한 철제와 청색으로 충만한

교육에는 전쟁에서 전쟁에

가장 큰 전투와 힘을

내려온 것이다.

교수사업은 전투와 힘을

내려온 것이다.

전체 학생들은 전투와 힘을

내려온 것이다.

전쟁으로 전투와 힘을

내려온 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반공화국핵소동

남조선의 현 당국이 핵문제해결을 북남관계개선의 기본전제로 끌고나오는 온당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정권에 쓰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최우선순위」라느니 뛰어면서 핵문제와 북남관계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북남관계의 어려운 문제들도 「북핵 문제해결의 진정성도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조건부로 말아놓고 있다. 한편 외세에게 「북핵 문제」에 걸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소통강화」를 구걸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제재암보작동에 적극 가담해 나서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달 말에 있게 될 미 국대 통행과의 회담의 제도 기분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으로」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핵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오늘에까지 되었는가 하가는 정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핵문제를 구실로 미국의 반공화국암보작동에 종종하면서 북남관계개선까지 고려되는 실로 어려운 행위가 이날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왜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가 그 해석력을 보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떠나야 한다. 다시 말하여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한 역사공부부터 살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로 인해 산생된 문제이다.

미국이 이미 지난 조선전쟁초기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확약하면서 전후시기 남조선에 핵무기로 풀어들이면서 북침전쟁에서 핵공격을 가상한 전쟁불상난 등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는 사실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침략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핵위협을 가중시켜온 것을 보유하고 그것을 강화하였다. 조선반도핵문제를 물려받은 학력의 차를 원천화하였다.

전쟁한 평화는 그것을 해치는 침략전쟁을 단면에 요청될 수 있는 강위력한 철뢰, 무진막강한 군력에 의해 수호되고 달보된다.

세계의 일흔한 현실이 보여주듯이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질질한 호소나 값비싼 동정으로는 얻을수 없다. 우리의 핵보유경단과 학역제력강화조치는 반드시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현 당국

다. 핵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반대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들을 구축하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격식시키기도 정당하다.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균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고 억압금과도 바꿀수 없으며 오히려 질방식으로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군조선의 자위적역제력이다.

우리는 미국과 그 무엇을 바꾸어먹기 위해서는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며 민족민영의 길은 길을 엎어나가기 위해 핵을 보유하였다. 우리의 자위적인 학역제력이 암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릴음직하게 수호해 주며 자주적통일의 밤은 앞날을 기약해주는 만능의 보경이다.

남조선당국이 이것을 외면하고 「북핵포기」를 떠드는 것은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암보작동에 편승하여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은 피의 보수당파의 전철을 담습하는 비난족적행위이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당은 미국의 만년제보인 미국의 자위적역제력제력을 「실탄하고 중대한 위험」이라고 썩은 놀가에서 암미구리 듯한 악의 차서 험준으로 북남관계를 원천화해 퍼파하였다.

피의원도가 「북의 핵, 미비위험」을 운운하며 그 무슨 「독자체제」라는 간관밀에 북남협력의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개성공업지구를 원천화하는 것은 그 대포적실례이다.

북남관계문제는 미국의 반공화국암보작동의 간접적인 핵문제와 이어진 상관도 없다.

이 아니라 남조선통치파들이 핵문제를 구실로 미국의 반공화국암보작동에 적극 편승하면서 빛어진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핵소동에 풍물할수록 북남관계는 더욱 파괴되며 침략과 대결화려는 속설의 발

로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조미간의 문제인 핵문제를 북남사이에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우려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이 「북핵포기」를 떠들어대며 불주랑을 피우고 있는 것이야말로 침략적인 외세의 전에서 동족과 대결화려는 속설의 발

로이다.

남조선당국은 「북핵포기」라니 하며 우리를 걸고들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학여 외세의 침략파와 탄생일인 간접핵동을 저지시키기 위한데로 정책적 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현 당국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의 원연적귀걸로서 너부나 도 정당하다.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균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고 억압금과도 바꿀수 없으며 오히려 질방식으로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군조선의 자위적역제력이다.

우리는 미국과 그 무엇을 바꾸어먹기 위해서는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며 민족민영의 길은 길을 엎어나가기 위해 핵을 보유하였다. 우리의 자위적인 학역제력이 암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릴음직하게 수호해 주며 자주적통일의 밤은 앞날을 기약해주는 만능의 보경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동족에게 끌어입이 핵위협을 가하며 우리 민족의 미려우에 핵전쟁의 재난을 막아 블로이는 미국의 범죄적 폭동을 문제시하여야 한다.

까놓고 말하건대 남조선당국이 우리 외의 대결을 주구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침략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역제력을 실현해 줄 때에 우려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이 「북핵포기」를 떠들어대며 불주랑을 피우고 있는 것이야말로 침략적인 외세의 전에서 동족과 대결화려는 속설의 발

로이다.

명백히 말하건데 조미간의 문제인 핵문제를 북남사이에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우려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이 「북핵포기」를 떠들어대며 불주랑을 피우고 있는 것을 세워놓고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런 침략의 특수성이 우리 고교에서도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을 세워놓고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상이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핵전쟁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로 학폭한두한후원을 떠들어놓는 것은 세

<p